



갯내음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화성(華城)

강 옥
자유기고가

경기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화성(華城)은 예로부터 충·효·신의 정신을 간직한 충효의 고장으로 불려져 왔다. 또한 민족혼이 살아 숨쉬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화성 땅의 지형은 대부분이 서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평지로 산이라고는 나지막하게 몇 개 뿐이 흘어진 것들뿐이다. 거기에 빨간천, 황구지천, 오산천 같은 큰 하천이 이 곳을 적시며 서해로 빠져들고 실오라기 같은 하천들이 곳곳에 뻗어있어 화성 땅은 예로부터 김포군, 평택군과 더불어 경기도의 곡창지대가 되었다.

화성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각축장이었다. 한강 이남의 비옥한 영토로 당나라와 해상 물물교역의 교두보로서 지리적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고구려 때는 매흘, 신라 때에는 수성, 고려 때에는 수주였는데, 이름이 잇달아 물을 뜻하는 ‘수’나 ‘매를 따서 지어졌다. 화성 땅은 조선시대에는 오늘의 수원시를 품고 있던

수원도호부의 땅 이었다. ‘화성’이라는 명칭은 조선 22대 임금 정조 때에 새로 덧붙여진 이름이다.

2001년 3월 시로 승격된 화성은 다양한 전통 문화유산과 바다, 갯벌,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풍요의 고장으로 도시민들의 심신을 달랠 수 있는 최적의 관광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동과 정서의 축을 잇는 서해 낙조가 일품으로 연중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함에 따라 수도권에서 한층 수월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화성8경(華城八景)’은 이 지역의 빼어난 경관 여덟 군데를 일컫는 것으로 옛부터 유명하다. 즉 제1경 융건백설(隆健白雪), 제2경 용주범종(龍珠梵鐘), 제3경 제부모세, 제4경 궁평낙조(宮坪落照), 제5경 남양황라(南陽黃蘿), 제6경 입파홍암(立波紅岩), 제7경 제암만세(提岩萬歲), 제8경 남